

# 전북도, 새만금 신항 발전 방향 '머리 맞대'

### 새만금 신항 조기 활성화·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친환경 항만 운영 전략 등 모색

전북도는 25일 전북테크비즈니스 대학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 특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6년 2선석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포럼 발제는 이희용 교수(영남대학교)와 김세원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았다. 이들은 각각 글로벌 콜드체인물류 발전을 위한 새만금 신항의 역할, 우리나라 탄소중립 항만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이희용 교수는 △항만물류 환경 변화와 정책동향 △새만금 신항의 글로벌 콜드체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콜드체인 물류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원 실장은 친환경·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탄소중립 항만 정책에 부합하는 새만금 신항 운영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아진 지정토론은 원승환 교수(군산



전북도는 25일 전북테크비즈니스 대학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 특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3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대학교)가 좌장을 맡았고 김종경 (사)한국포장학회 회장, 장성연 바이오코엔(주) 부사장,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 양형석 (사)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이사, 이균형 전북CBS 보도기획국장, 장유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

과 팀장,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항만중심의 스마트 물류 체계 및 고부가가치형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필요성, 새만금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과 중국 및 동남아

와의 교역 활성화에 대한 환해안 거점 항만으로 새만금 신항 특화 발전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국가 항만정책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인 수소의 생산 유통 가능 항만으로 새만금 신항의 여건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2024년에 고사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지금이 새만금 신항의 특화 발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새만금 신항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새만금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포럼에서 논의한 공공주도 매통 공론화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김재훈 기자

## 전북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열려

### 서울 aT센터, 1:1 상담·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귀농귀촌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전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새로운 시작, 전라북도 귀농·귀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될 이번 행사는 전북 13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도 귀농·귀촌 정책을 알대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누리집(<http://jream.tok.go.kr>)에서 예약 접수할 수 있다.

올해 홍보전은 2023년 전북 귀농귀촌 우수 사례자들의 생생한 정착 이

야기와 조기훈 강사의 '생애설계란 무엇인가', 김상훈 강사의 '소비트 렌드와 창업아이템 찾기' 전문가 강연, 귀촌 창업들의 토크쇼가 진행된다.

또 전북 6차 산업 인증업체가 참여해 전북도의 우수한 품질을 갖춘 다채로운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전북 특산품과 전통주를 주제로 한 페어링 쇼, 전북의 귀촌 귀촌 퀴즈 프로그램, 행운 복권 이벤트 등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택시 이용객 만족도 높이자'

### 도-택시업계, 내달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친절 서비스 다짐 결의

4년 만에 전북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이에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경 노력에 나서고 전북도는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전북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주관으로 25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구소에서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다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내 택시업계와 운수종사자들은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도민에게 신뢰받는 택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택시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편리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와 시군 택시업계는 합동으로 타기널 가차역 등 다중이용장소 및 심야

시간대에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지부는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8월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도는 모든 택시에 택시불편신고센터 연락처도 부착해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동일 운전자가 불친절행위 신고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친절교육을 재실시해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정사항으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기본거리는 2km로 동일하고, 7기요금은 137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할증률은 20%로 동일하다.

조정요금 시행은 시 지역의 경우 8월 1일부터이며, 군 지역은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도-태국, 스마트 수산양식 공동 연구·기술 개발 '맞손'

### 새우류바이오 양식기술 선두주자

### '태국 국가기술개발원 과 협약'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1일 새우류 바이오 양식기술의 선두주자인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과 스마트 수산양식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갑각류(새우류)의 종자 보존, 연구 개발 등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스마트 수산양식 관련 전문지식, 기술 및 각종 정보교환 △학술·출판물의 상호교환 등 학술적 교류 △기타 협력분야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도는 태국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1일 새우류 바이오 양식기술의 선두주자인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과 스마트 수산양식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개발원에서 보유중인 무병새우 종자 및 모하이식을 제공받아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대량생산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 간 첨단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가 R&D 예산 확보 및 연구사업 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재희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양식산업 발전 부문에 있어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수요가 많은 갑각류 신종 양식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으로 어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리고 채식' 교육 참여자 선착순 모집

### 도, 기후위기 시대 채식 실천의 중요성 주제... 내달 11까지 신청

전북도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중요해법으로 채식 실천을 제시하고자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리고 채식'을 주제로 도민 교육과정(이하 교육)을 기획하고

교육 참여자를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도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지난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채식

밥상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도 채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 주관으로 8월 중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총 3회차로 운영된다. 1회차는 8월 16일

오후 2시, 2회차는 18일 오후 2시, 3회차는 22일 오후 2시이다. 무료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며, 회차별 참여 인원은 30명이다.

신청 방법은 모집 기간 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 또는 웹 포스터 QR코드로 접속해 참여 회차를 선택하면 된다. 교육 회차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 /김재훈 기자

## 보리·호밀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 총 4개 품종·내달 25일까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에서는 2023년도 맥류 보급종을 대상으로 8월 25일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4품종 347.8톤으로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 될 예정이며, 가격은 결보리 2만 4,270(1포/20kg), 쌀보리 2만 6,490(1포/20kg), 호밀 4만 1,730(1포/20kg)이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문의나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립종자원 대표번호(1533-8482),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0) 및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모 집** 우석대, 전주교육대, 전북과학대, 원광대 군산대, 남원평생스피치웃음코칭과정 모집

**스피치·긴장해소·웃음코칭·리더쉽, 면접**

◎모집대상: 대학, 일반인 남녀 누구나 ◎매주 1회 수업(주산, 야산)  
◎등록방법: 전화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가능  
◎전화: 063-285-6676, 010-7304-5665

※7월~8월 과정은 우석대, 원광대에서 강의함  
※2학기 모집은 수시로 하며 9월 개강합니다.  
※개인지도: 면접, 연설, 웅변, 시낭송, 인사말 등 상담 환영

김양욱 (사)한국스피치어용협회 전북본부 회장이 직접 지도함.

---

**환 영** 장수군 천천면 금강다슬기축제를 위한 제1회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가요제

금강의 상류 청정지역 장수군 천천에서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관광홍보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가요제에 참가를 기원합니다.

①일시 : 2023년 8월 12일(토) 오전 10시예선, 본선 오후 4시30분  
②장소 :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11, 축제특설무대  
③주최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본부  
④주관 :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전북장수군지부  
⑤참고 : 본 대회는 각 전국대회에서 대상(1등) 수상자는 제외함  
⑥접수 문의 : (063)231-6669, 010-7304-5665, 010-4658-8198  
⑦참가자는 일만원 경비 납부요망 (접수자는 안내함)

전북회장 김양욱, 장수군지부장 김을만(장수군민) 올림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